

01234

{베를린 베를린}

56789

«모스크바 모스크바»

.,:;!...

(피렌체 피렌체)

\$£€¥§₩

오슬로 오슬로

, ‘ ” - _ † ‡

¿파리 파리!

{«‹※›»}

:레이카비크 레이카비크:

[☁️⭐️☀️]

☀️소피아 소피아☀️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Display Regular 24pt

「별 헤는 밤」 중

저자
윤동주
장르
시
발표년도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1948

Display Regular 16pt / Display Bold 16pt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Display Regular 32pt / Display Bold 32pt

별 하나에 추억과
별 하나에 사랑과
별 하나에 쓸쓸함과
별 하나에 동경과
별 하나에 시와
별 하나에 어머니, 어머니,

Display Bold 11pt / Display Regular 11pt

윤동주 (1917.12.30 - 1945.02.16)
일제강점기에 짧게 살다간 젊은 시인으로, 어둡고 가난한 생활 속에서 인간의 삶과 고뇌를 사색하고, 일제의 강압에 고통받는 조국의 현실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 고민하는 철인이었다. 그의 이러한 사상은 그의 얼마되지 않는 시 속에 반영되어 있다.
*주요작품 「서시」, 「또 다른 고향」, 「별 헤는 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1948년 정음사 간행. 8·15광복을 몇 달 앞두고 옥사한 이 시인의 유고를 친구 정병욱과 동생 일주가 주선하여 발행했다. 저자의 사진과 서시가 있고, 1부에 「자화상」, 「소년」, 「눈 오는 지도」 등 18편, 2부에 「흰 그림자」, 「사랑스런 추억」 등 5편, 3부에 「참회록」, 「간」 등 42편, 4부에 「산울림」, 「해바라기 얼굴」 등 22편, 5부에 「투르게네프의 언덕」, 「달을 쏘다」 등 5편, 모두 92편이 수록되었다. 1부는 연희전문 문과를 졸업할 무렵 졸업기념으로 출판하려던 자선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수록한 것이고, 2부는 도쿄 시대의 작품, 3부는 습작기의 작품이다. 그리고 4부는 동요, 5부는 산문이다. 일제강점기에 민족의 아픔을 노래하거나 내면적 자아를 응시하는 시들이 대부분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두산백과)

Display Regular 20pt / Display Bold 24pt

가슴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헤는 것은
쉬이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가슴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헤는 것은
쉬이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에 추억과
별 하나에 사랑과
별 하나에 쓸쓸함과
별 하나에 동경과
별 하나에 시와
별 하나에 어머니, 어머니,

[서시]

저자

윤동주

장르

시

발표년도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1948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앞세에 이는 바람에도 /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Display Bold 18pt / Display Regular 16pt

작품설명

1941년 11월 20일에 창작되었다. 윤동주의 유고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1948)의 서시인 이 작품은 시집의 전체적인 내용과 윤동주의 생애를 암시하고 상징한다. 존재론적 고뇌를 투명한 서정성으로 이끌어 올림으로써 광복 후 혼란한 시대에 방황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따뜻한 위안과 아름다운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시인 박두진은 최고의 서정시라고 찬사를 보내고 있다.

작품은 2연으로 되어 있으나 내용상 3연으로 나눈다. 1연은 하늘의 이미지가 표상하듯이 천상적인 세계를 지향하는 순결의지로 해석되고, 2연은 섬세한 감수성의 올림으로써 대지적 질서 속에서 고뇌하는 삶을 보여준다. 3연은 ‘별을 노래하는 마음’처럼 진실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바탕으로 한 소명의식을 보여준다. 특히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라는 구절은 운명에 대한 확고하면서도 신념에 찬 결의를 다지고 있는 것으로 자아 성찰과 미래에 대한 낙관적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작품의 주제는 현실에서 도피하지 않고 운명과 맞서서

절망을 극복하려는 자기 구원과 사랑이라고 볼 수 있다.

절망의 환경일수록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일 수밖에 없다. 윤동주가 선택한 구원의 방법은 운명에 대한 긍정과 따뜻한 사랑이었다. 진실한 자아 성찰과 통렬한 참회의 과정을 겪으면서 변증법적 자기 극복과 초월의 노력으로 마침내 참된 생명력을 획득하게 된다.